

금주의 칼럼

불평 제조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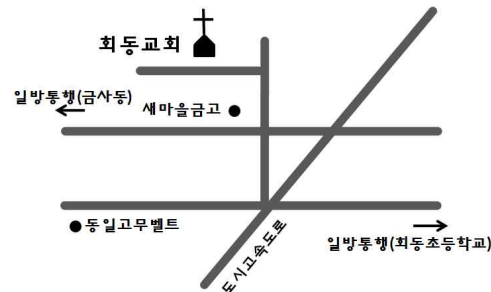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기차 여행 중에 경험한 일이라고 한다.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부인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에어컨이 약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부인의
이런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가 무엇을 만드는 사업이냐고 묻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롱화)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 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 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 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5장
교 독 문	38문 (시편 92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405장
기 도	오정수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6:1-10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오병이어의 기적
찬송*봉헌	287장 / 봉헌 / 봉헌기도
수 료	새신자 5주과정 수료 /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2026. 11 . 1 / 제 48-44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 배영조목사

작은집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406 장 / 415 장

기 도: 오세영 집사 (다음: 신광수집사)

성 경: 시 68:32-35

특 송: 자원자 (다음: 자원자)

말 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3)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요한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11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오정수(온천) 오세영(재송)
안 내 / 식 당	이봉순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1일) 2주(8일) 3주(15일) 4주(22일) 5주(29일)
기 도	1,2구역 3,4구역 5,6구역 7,8구역 9,10구역
주 일 예 배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최진수
주 일 오후	오세영 신광수 이순점 이은심 김경애
삼 일 밤	합심기도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안내: 11월 행사 및 봉사당번 순서 나갑니다. 주보참조
 - 2 수료: 새신자 수료(5주과정)수료자- 김명숙, 정원일
 - 3 구역모임: 11월 구역 모임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 나감
 - 4 세례증: 세례증과 유아세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 5 추수감사: 11월 15일(셋째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 6 대회: 3여전도회 주관 찬송과 율동대회(장기자랑) 문의: 3여전도회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오후 시간 방식: 각 기관별 대회
 - 7 임직 및 은퇴식: 안내는 권사님들, 차량정리는 안수집사님들 수고 바랍니다
 - 8 행사안내 1) 경배와찬양: 11월 둘째주
2) 임직자 모임: 11월 둘째주
3) 추수감사절: 11월 셋째주
4) 찬양율동대회: 11월 셋째주(3여전도회 주관)
5) 기관총회: 11월 셋째주
6) 임직 및 은퇴식: 11월 18일(수) 저녁 7시 30분
7) 정책당회: 11월 22일 주일
8) 예결산위원회모임: 11월 29일 주일
- # 전도팀: 11월 전도일 1교구/ 13 일 2교구/ 24 일
- # 기도제목
- 1 행사: 1) 임직 및 은퇴식: 11월 18일 수요일 저녁 7:30
2) 추수감사 3) 기관총회
 - 2 교우: 질병중에 계신 교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11 월 행사 안내

* 추수감사절: 11월 셋째주	* 구역장행사: 11월 15일
* 구역모임: 11월 구역모임.	* 정책당회: 11월 넷째주
* 경배와 찬양: 둘째주	* 예결산위원회모임: 11월 마지막주일
* 각 기관 총회: 셋째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1,2교구
* 임직자교육: 11월 둘째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찬양 율동대회: 3여전도회주관 셋째주	* 새가족부: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 임직 및 은퇴식: 11월 18일	
* 구역장모임: 11월 29일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김수안*허춘성 김은수*김은숙 김중렬*박광자
박위순 백운자 오세영 오정수*최은경
이성희(여) 한성희
- ◆**감 사:** 김영숙 김은수*김은숙 김중렬*박광자 박영화
박위순 박종규*강영선 백운자 오세영
이영순 정원일 한수진 무명
- ◆**선 교:** 2여전도회 김수안*허춘성 김중렬*박광자
배영조*김옥단 오세영 백운자 이말연 무명
- ◆**건 축:** 김중렬*박광자 배영조*김옥단 오세영 이말연
김수안*허춘성(2) 백운자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11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813	
2	강형순				9670	
3	이은심				8880	
4	백운자				13135	
5	김경애				6360	
2교구						
6	이봉순				2732	
7	박광자				4200	
8	이현정				11390	
9	전만주				7360	
10	김종섭				1750	

생명의 양식

11-1 건전한 자아상 확립(2) 잠언 14장 26절 구역공과

첫째,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는 점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암시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패의 순간에 자녀들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는 때는 잘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칭찬을 통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인정이 없이 자아상을 가르치는 것은 헛된 구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장단점을 다 인정해 주어야 자녀들도 자신의 장단점을 다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건전한 자아상이 확립됩니다.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자꾸만 눈치를 주지 마십시오. 슬픈 표정을 하고, 드러눕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듯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자녀를 괴롭게 하면 안됩니다. 실패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당사자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진정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소리는 우리들의 한숨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정과 격려의 소리입니다. 실패했을 때 부모들의 한숨소리는 자녀들의 확립되어가던 자아상마저 꺾어버립니다. 반면에 실패했을 때 부모들의 인정과 격려의 소리는 자녀들의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의 실패는 자녀들에게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 100점만 받아오라고 하지 말고 100점에서 80점 맞았을 때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기회가 생긴 것을 좋아하고 그때를 오히려 격려를 통한 자아상 확립의 기회로 삼고 넓은 마음과 여유를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80점 맞았을 때 정말 칭찬해 주십시오. 80점 맞았을 때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건전한 자아상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행동은 자녀들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공을 만들어내는 힘은 건전한 자아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힘이 생기도록 도와 주십시오.